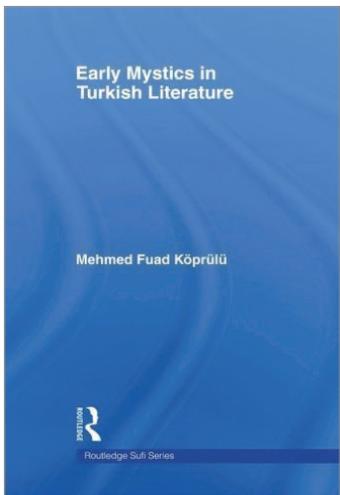


| | | |
|---|--------------|-------------------------------------|
|  | 제목 | Early Mystics in Turkish Literature |
| | 발행언어 | 영어 |
| | 발행처 | Routledge |
| | 발행일 | 2012. 2. 8. |
| | 저자 | Mehmed Fuad Koprulu |
| | 출판도시 | London, New York |
| | 페이지수 | 496 |
| | ISBN 또는 ISSN | 978-0415665124 |

내용 요약

본 책의 저자 M.F. Koprulu는 터키의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선도적인 학자로써 2012년에 출간된 저서 『Early Mystics in Turkish Literature』는 20세기 터키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중요한 학술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터키와 페르시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터키 문학의 초기 발전양상을 조명하고 터키와 아나톨리아 간의 문학발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터키 문학의 정신적 근간인 초기 신비주의자들의 수피즘외에도 터키 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이슬람교, 그리고 이슬람 세계 속에서의 터키문화의 기원 등을 살펴보면서 터키 문학의 발전상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책은 터키 문학 연구자, 이슬람교, 수피즘 연구자 및 터키 역사학자들에게는 필독서라 하겠다.

제1장에서는 12세기 수피시인인 아흐메드 야사위 이전과 이후의 터키 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흐메드 야사위의 전설적인 삶과 역사적 삶, 그의 작품들, 그리고 그가 터키 문학에 끼친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문학 속에서 터키 문학을 살펴보는 기존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아나톨리아 문학을 독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누스 엠레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당대의 터키 문학의 양상과 그가 터키 문학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Koprulu는 유누스 엠레를 시작으로 아나톨리아에 진정한 터키 “국가” 문학이 발생, 발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